이렇게 들었다

지계(持戒)

"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니…"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수행자의 기본덕목이다. 비단 출가 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 신도들에게도 계율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성직자, 종교인이 일반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도 계율에 따라 도덕적으로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 이후 펼쳐지고 있는 초발심 회복운동도 지계를 가장 근본적인 실천 수행으로 꼽고 있다. 계율을 바로 세울때만이 화합승단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계 정신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섯가지 손해가 있다. 첫째, 재물을 구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설사 재물이 있더라도 점점 줄어든다. 셋째, 사람들의 공경을 받지 못한다. 넷째, 나쁜 이름이 세상에 퍼진다. 다섯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계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 반대의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장아함경〉

▨지계(持戒)는 여덟가지의 것을 갖추어야 청정해진다. 여덟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곧음이다. 둘째는 모든 행위가 청정함이다. 셋째는 마음에 험과 더러움이 없음이다. 넷째는 뜻을 높이 가져 굳고 바름이다. 다섯째는 바른 생활방법에 의해 스스로 살아감이다. 여섯째는 두타(頭陀)에 만족할 줄 앎이다. 일곱째는 온갖 거짓되고 진실치 않은 모습을 떠남이다. 여덟째는 언제나 보리심을 잃지 않음이다. 〈무수불경계경〉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려갈지언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데 그치거니와 계를 깰 때에는 백만생(百萬生)에 걸쳐 악도(惡道)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세존께서 존자 대목건련에게 이르셨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미혹해서 계를 어기든가, 무참 무괴해서 율의(律儀)를 업신여겨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목련소문경〉

▨믿음과 재물과 청정한 행실은 얻기 어려우나, 계율을 지키는 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 세가지에 밝게 눈 뜬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수시로 남에게 베푸니, 모든 하늘도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그는 언제나 평온을 얻고 법의 기쁨을 스스로 누리면서 세상의 오욕락(五欲樂)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아란존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난아, 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만약 계를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난아,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중아함경〉

▨계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를 손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악도(惡道)의 문으로 가게되고, 계를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히 온갖 선처(善處)의 문으로 가게된다. 〈문수사리정율경〉

하회마을의 팬지꽃

제언

윤범모
미술평론가
경원대 교수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여지껏의 호젓하던 시골길 분위기와는 달리 번잡했다.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버스들의 행렬을 보고 우리는 내심 놀랐다. 안동 하회마을.

그러나 우리들은 하회에 와서 실망을 안기 시작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을 보며 고려건축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는 우리들의 답사여행길은 하회에 와서 어그러졌다.

마을은 인파로 어수선할 따름이었다. 영국여왕의 방문지 가운데 하나로 하회마을이 포함되었다는 보도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 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할머니 관광단에 이르기까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냄비현상의 또다른 반영인가. 매스컴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내 들끓었다가 또 이내 식는 습성 말이다. 언제부터 문화유산 답사가 보편화된 민족이란 말인가.

하회마을의 시장바닥화에 비하여 이웃 병산서원은 한가했다. 한나절을 소요해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다. 우리들은 병산의 풍취를 만끽했다. 그러면서 비포장 진입로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 하회마을 방문객들은 병산서원까지 찾는 것이 마땅하다.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출신인 유성룡의 사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회마을의 인파는 병산서원을 외면하고 그냥 되돌아간다. 여행의 부실함을 확인케 해주는 단면이다.

하회마을은 이제 보호받는 민속마을이기에 앞서 저자거리와 같았다. 골목마다 식당과 기념품가게 그리고 민박 업소 등으로 가득찼다. 우리다움의 정취가 푸대접받고 있었다. 특히 간판의 그 유치함이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디자인 감각의 결여가 주 원인이다. 마을은 깨지고 있었다.

특히 나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골목 어귀마다의 화단이었다. 여왕을 맞이하기 위한 치장치고는 번지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봄비에 젖고 있는 꽃들은 팬지 같은 서양꽃이었다. 아니, 민속마을에 웬 서양꽃이란 말인가. 나는 부끄러웠다.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정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서양꽃으로 장식된 엉터리 민속마을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는 한 여학생의 푸념을 잊을 수가 없다. "두번 다시 하회마을에 오지 않겠다." 그 여학생은 조금전에 이런 말을 한 장본인이었다. "신혼여행은 병산서원으로 오겠다."

하회마을의 팬지꽃, 마냥 나를 우울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하회마을을 빠져 나왔다.

실천승가회 '조계종사태 반성과 교훈' 토론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종단개혁 '4·10' 5주년을 맞아 13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98 조계종 사태의 반성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홍사성씨(불교시대사 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조계종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대중공의-상하위계 조화이뤄야"
"세속적 종무 재가자에 이양을"

발제

청화〈실천승가회 의장〉=94년 개혁종단은 성과물을 제대로 호지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실천할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 종단의 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종도대중들의 의사와 정서를 파악하여 종단개혁의 주인으로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집행부는 인적, 제도적, 정신적 개혁을 주도할 수 없었고 중앙신도회 구성등의 문제가 축적되어 말기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종단사태를 극복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결정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대중공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중공의와 상하위계의 합리적 조화'라는 승단의 전통적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도대중을 종단운영의 주인으로 세워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종회등은 스님의 수행을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상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종무행정풍토를 만들고 공명정대한 인사행정의 확립과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기위해 종단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토론

일철〈조계종 재무부장〉=참신한 사람들이 종단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단이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수행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종단운영에 대한 정치적 개념인 집단주의가 깨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명한 인사와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사찰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총무원집행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부터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한 종무운영에 사부대중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법장〈무진법장사 주지〉=주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주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 또한 주지가 사찰을 건립했다 하더라도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신도들 역시 주인되는 자세로 자신의 역할에 투철하게 나서야 한다.

정웅정〈재가연대회의 사무처장〉=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이 종단의 소임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중앙종회에는 재가불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동책임운영으로 이제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해야한다. 나머지는 재가신도들에게 맡겨야 한다.

독자의 소리

초파일 이전에 화합불교 되찾길

천육백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불교가 어찌하여 온늘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본시 불교란 무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또 한편으로 자비발현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 명제가 주어진 무상의 길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불교계 실상을 바라볼 때 이같은 명제가 과연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불자들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바새 우바이들은 스님들의 감로법음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스님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는 커녕 출가본연의 정신인 무소유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스럽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난 조계종의 분쟁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없는 폭거요, 만행이요, 망동 망착이었다. 이같은 만행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써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을 비롯 모든 불자들은 깊이 참회하여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화합종단을 이뤄 대승보살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박갑철〈원각사·사리탑복원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아직도 '기독교 군대' 오명 못벗다니

불자 장군 김태복 소장 재판과 관련해 개신교계의 의도적인 '불자 장군 죽이기'가 아니냐는 최근의 잇단 보도는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기독교 군대'가 아니냐는 항간의 소둔이 사실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장로였던 김영삼 前대통령 당시 군의 수뇌부가 대부분 개신교 장성으로 채워졌으며, 현재 전체 장성의 65% 이상이 개신교 장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20%이상의 천주교 장성 역시 크리스천 이어서 전 장성의 85% 이상이 기독교인 장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군대가 기독교 군대가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역시 천주교인이어서 군수뇌부는 물론 장성이 되려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사실이 될 정도다.

김태복 장군 기소건은 개신교인 군인들의 '불자 장군 옷 벗기기' 의도가 분명한 만큼 군기 회복 차원에서 이에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기독교 군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군 장성 진급심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서울 종로구 삼청동〉

보리수마을의 노인들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96년 10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 세움실버 보리수마을(대표 김영주)이 30개월만에 200억원이 넘는 부채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식사조차 제공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입주자들이 식당에서 사먹거나 직접 해먹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대표이사인 김영주씨와 상임이사 명신스님 등 운영관계자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20여명의 직원들은 모두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난 상태다.

보리수마을은 출발 당시 조계종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노인복지시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조계종 문사부장 시현스님이 개인자격으로 대표이사를 맡았었고, 시현스님이 입적한 뒤인 97년 동생 명신스님이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아 운영해 왔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보리수마을은 어디까지나 시현스님 개인에서 출발했고 법적으로 종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명의를 도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해 종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리수마을 주민자치회장 장이상씨는 "이곳에 입주한 123세대 157명의 노인들은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어째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항변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계종 관계자나 자치회장의 말은 둘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조계종은 종단 명의의 무단사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지못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또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책임소재를 논하기 보다는 불교를, 조계종을 믿고 입주한 노인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하루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자비종단으로서의 모습을 내보이는 일일 것이다.

노인복지는 이제 범지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불교야말로 노인복지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mwhan@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논」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